



# 자원배분에 대한 기준과 인식 그리고 행복

이채정 부연구위원(삶의질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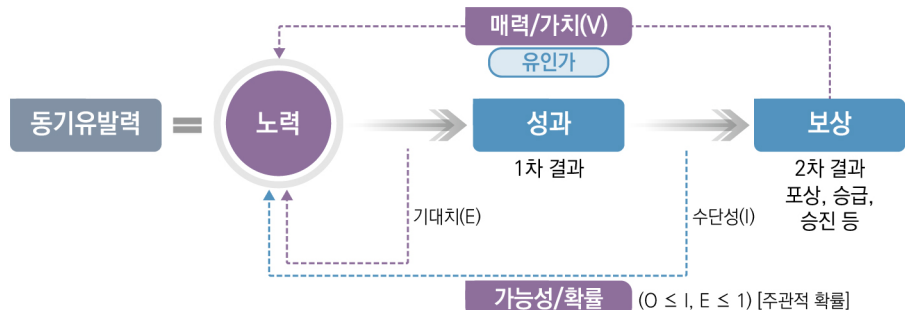
## '하면 된다' vs. '되면 한다'

- 노력한 만큼 얻은 성과에 의해 보상이 주어졌던 사회에서, 노력을 통한 성과의 달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로의 변화는 어떤 일을 해보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성취감을 맛보고 그로 인해 행복감을 느낄 기회가 감소한 사회가 도래하였음을 의미
- '하면 된다'는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압축 성장을 통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동안, 한국인의 노동 나아가 사회의 자원배분에 대한 태도를 지배해 온 수사(修辭)
- 노력을 통해 성과를 내고 보상을 얻는다는 '하면 된다'는 태도가 원하는 수준의 보상이 보장된다면 노력을 해보는 '되면 한다'는 태도로 변화한다는 것은 사회의 자원배분에 있어 노력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고, 명확하고 일관된 보상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할 가능성
- 제2차(2022년) 및 제3차(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결과를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인의 자원배분에 대한 기준과 인식이 어떠하며, 행복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함

## 브룸(Vroom)의 기대이론(VIE 모형)

- 브룸의 기대이론은 현재의 노력(동기유발력)은 그 결과로 인하여 미래에 발생할 성과와 보상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가정에 기반
- 개인에게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1)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의 결과 혹은 보상에 대해 매력(유인가; Valence), 2) 더 많은 노력을 하면 성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믿으며(기대치; Expectancy), 3) 성과가 높아지면 보상도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수단성; Instrumentality)는 전제
  - 기대이론에 따르면, 동기유발력(노력)을 결정하는 유인가와 기대치, 수단성 모두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음
  - 노력의 결과는 1차 결과인 성과와 2차 결과인 보상으로 나누며, 보상은 개인의 욕구충족과 관련

그림 1 브룸의 기대이론 도식화



● 동기유발력(MF) = ΣVIE  
= [유인가\*기대치\*수단성]의 합(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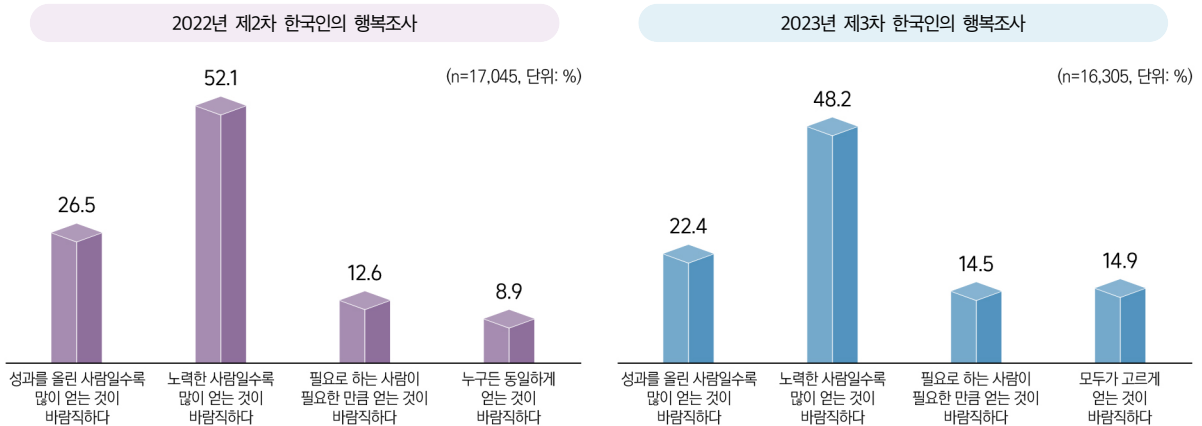
●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을 VIE모형이라고도 함

- 보상에 부여하는 가치(유인기)는 개인의 영역에 속하나, 기대치와 수단성은 조직 혹은 사회 차원에서 노력과 성과가 비례하고, 일관되고 확실한 보상체계가 확립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 가능

## 한국인의 자원배분에 대한 기준과 인식 조사 결과

- 국회미래연구원의「한국인의 행복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한국인은 노력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식
- ‘한 사회의 자원(높은 지위와 경제적 풍요)을 누가 얻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2022년과 2023년 모두 ‘노력한 사람일수록 많이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2022년 52.1%, 2023년 48.2%)’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과를 올린 사람일수록 많이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2022년 26.5%, 2023년 22.4%)’고 답변
- 이어서, 2022년에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12.6%)’는 답변이 ‘누구든 동일하게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8.9%)’는 답변보다 높았고, 2023년에는 ‘모두가 고르게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14.9%)’와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14.5%)’의 순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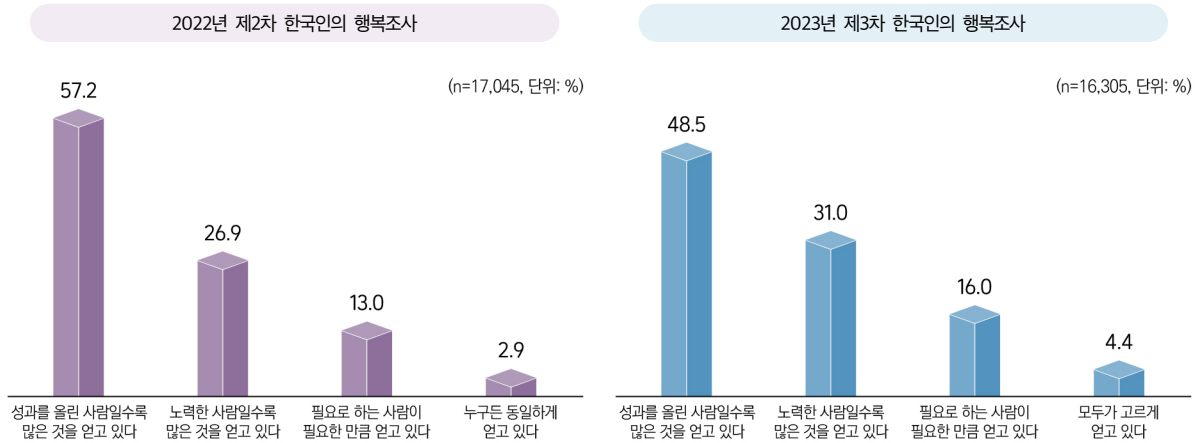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인의 자원배분에 대한 기준



주: '누구든 동일하게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형평에 따른 배분의 의미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3년 조사에서 '모두가 고르게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로 표현을 변경

- 다수의 한국인은 노력이 기준이 되어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성과를 올린 사람이 많은 자원을 얻고 있다고 인식
-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사회의 자원(높은 지위와 경제적 풍요)을 누가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2022년과 2023년 모두 ‘성과를 올린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얻고 있다(2022년 57.2%, 2023년 48.5%)’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력한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얻고 있다(2022년 26.9%, 2023년 31.0%)’고 답변
- 이어서, 2022년에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얻고 있다(13.0%)’는 답변과 ‘누구든 동일하게 얻고 있다(2.9%)’는 답변이 뒤를 이었고, 2023년에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얻고 있다(16.0%)’는 답변과 ‘모두가 고르게 얻고 있다(4.4%)’는 답변의 순서로 조사됨

그림 3 한국인의 자원배분에 대한 인식



주: 누구나 동일하게 얻고 있다는 사회적 형평에 따른 배분의 의미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3년 조사에서 '모두가 고르게 얻고 있다'로 표현을 변경

### ● 한국인의 자원배분에 대한 기준과 인식에 따른 행복감을 살펴보면, 2022년과 2023년 모두 상대적으로 행복 수준이 높지 않은 집단(보통이거나 낮음)에서 성과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에는 행복감의 수준이 보통에 해당하는 집단일 경우 대체로 노력을 기준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성과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반면, 2023년에는 사회의 자원이 노력을 기준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상대적인 행복감의 수준이 높고, 실제로는 자원이 성과에 의해 배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상대적인 행복감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집계
- 자원배분에 대한 기준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직업유무, 종사상지위, 고용형태, 건강상태, 개인소득, 혼인상태, 가구원 수, 주거형태, 주택유형, 기초생활수급, 다문화가정, 가구소득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정적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특정하는 데 한계

※ 행복감의 수준은 전반적 행복감, 어제 행복감, 어제 미소/웃음 정도, 5년 전 삶의 만족도 등을 0~10점의 11단계로 측정하였고, 0~4점은 낮음, 5점은 보통, 6~10점은 높음으로 구분

### ● 다수의 한국인은 사회의 자원이 성과보다는 노력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원배분은 노력이 아닌 성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

- 사회의 자원배분에 있어 노력이 성과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견해가 낮은 행복감과 상관관계에 있을 가능성 - 2023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행복감의 수준이 낮은 집단(0~4점)은 응답자의 43.8%가 '노력한 사람일수록 많이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으나, 47.6%가 '성과를 올린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차이 3.8%p), 전반적인 행복감의 수준이 높은 집단(6~10점)이나 보통인 집단(5점)에서 보이는 차이( $\Delta 0.2\text{p}$ ,  $\Delta 3.8\text{p}$ )와는 상반된 인식 격차를 보임
- 성과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 결정되는 노력의 수준에 따라 사회의 자원이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과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은 노력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고, 나아가 노력에 근거하지 않은 성과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고 있다는 인식(특히,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낮은 집단)에 기반한 것일 수 있음

- 브룸에 따르면, 노력은 성과의 이전 단계에 해당하여 성과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 개인이 어떤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기유발력의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인은 성과에 대한 개인별 기대치를 반영한 노력 수준이 자원배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성과 자체가 자원배분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어 더 많은 노력이 더 큰 성과를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 '해볼만 하다'는 사회를 향하여

- **노력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노력에 비례하는 예측가능한 성과가 달성되며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는 믿음이 자리잡은 '해볼만 하다'는 사회로 거듭날 필요
  - 사회가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하면 된다'는 식의 노력과 성과가 정비례하는 자원배분방식이 작동하는 데는 한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과 성과가 비례하고 명확하고 일관된 보상체계가 작동하여, 사회의 자원배분에 있어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
    - 이는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에 기반한 자원배분방식을 마련할 필요
- **우선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한국인의 자원배분 기준과 실제 자원배분 인식 간의 괴리를 유발하고, 자원배분의 기준과 인식 간의 괴리가 행복감의 상대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 필요**
  - 사회인구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치관, 사회적 신뢰 수준, 사회적 관계망 등 다양한 요인과 자원배분 기준과 실제 자원배분 인식 간 차이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
  - 궁극적으로는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자원배분에 대한 기준과 인식 간의 괴리가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사회 전반적인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 방안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